

프레온가스, 2010년 전면 사용금지!

기술표준원, 대체물질 이용 안내서 발생 ... 대체물질 사용량 1만7000톤

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윤교원)은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물질 이용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발행했다.

대체물질의 시험분석 방법과 대체공정의 성능평가 방법 등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관련산업 현장에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유용할 전망이다.

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이미 1996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.

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프레온가스가 자동차, 냉장고, 선박 등 관련산업에서 냉매, 세정제, 발포제용으로 한 해 6000톤이 사용되고 있으며, 대체물질도 1만7000톤 정도 사용되고 있다.

정부의 대체물질 개발과 대체공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, 국내 2000여개 관련기업들은 비용부담, 기술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.

한편, 기술표준원은 7월10일 산·학·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<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합리화 대책에 관한 기술세미나>를 개최했다.

세미나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(ISO TC86) 및 유엔환경계획(UNEP)의 국제표준제정 동향을 소개하고, 기술표준원에서 연구개발한 시험분석 규격 및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한 실무지도가 있었다.

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7/11>